

# 국제유가 5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 러시아 Yukos 위기로 공급 불확실 증폭 ... 수요둔화로 하락도 가능

이라크 및 러시아의 원유 공급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원유가격이 배럴당 47달러에 육박하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ion)에 따르면, 앞으로 50일 안에 원유가격이 100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은 50%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원유 공급량이 일일 기준 50만-70만배럴 가량 감소한다면 원유가격이 50달러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석유시장은 1973년 석유파동 때 보다 더 심각한 수급타이트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비 생산능력은 1973년 때와 유사한 수준인 150만배럴에 불과해 1973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1970년대 이후 석유 생산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일산 150만배럴은 세계 생산량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1973년 기준으로는 약 3%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석유 일일 수요는 8100만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 일일 평균 수요는 8130억달러로 예년에 비해 최소 220만배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이며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공급중단 가능성으로 수급전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석유기업 Yuko의 석유 생산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현재 예비 생산능력 수준이 Yukos의 석유 생산량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러시아 법원이 Yukos가 지원세금 34억달러를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각함으로써 공급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Yukos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러시아 석유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Yukos의 석유사업을 몰수하면 러시아의 석유 공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5위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Chavez) 대통령이 재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을 둘러싼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9월 OPEC 회의에서 목표유가 범위를 22-28달러에서 28-35달러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활성화 및 정치적 긴장완화 그리고 추가 공급확대로 원유가격이 곧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규 공급량은 2004년 하반기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2-3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기간 동안 원유가격은 배럴당 30-40달러대에 머물렀는데, 2차 오일쇼크 기간 동안 석유 수요가 260만배럴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세계 석유 수요세로 볼 때 유가강세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50달러로 치솟으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4/09/20>